

지역 매아리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1차 본회의에서 김은주 의원은 5분 자유 발언 '천년의 기다림을 끝내야만 하는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정읍사(井邑詞) 남평상 조형물 설치계획이 논란이 예상되는바 정읍시는 타 지자체의 조형물설치 실패사례를 신중히 검토하고, 또한 '행상나간 남평의 무사귀환을 비는 1300여년전 한 여인의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정읍사 본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남평상 조형물 설치의 지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수성동 택지 개발지구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수성제일아파트, 수성초 인근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시민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화재발생 등 비상사태 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수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장·단기 대책(오정마을 입구 주차장 확보, 수성동 근린공원 담벽철거 등)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태풍 대비 회의 개최

부안군은 1일 제18호 중형태풍 '비탁'이 북상함에 따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조치 방안을 위한 태풍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한근호 부군수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제18호 태풍 '비탁'은 2일 2시 목포 남서쪽에서 3일 9시 대구 동북동쪽 육상으로 이동하면서 부안군 지역에 강풍 및 호우에 따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2일부터 태풍해제시까지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기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편, 상황판단회의 시 재난대비 영상회의 및 2개소 합영부서별 대처사항 및 금후계획을 보고 받고, 특히 태풍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대형공사장 태워크레인 안전점검,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정비, 선박인양 및 결박, 간판날림, 외출자제 등 호우와 강풍에 대한 사전대비를 강화했다.

한근호 부군수는 "지난 7월 집중호우를 시작으로 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18호 태풍 '비탁'은 금년들어 우리 부안에 7번째 영향을 주는 중형급 태풍으로 부안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작물(벼) 수확철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태풍 링링으로 응급복구된 시설 등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인명피해,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조기사확, 노후주택, 선박 예찰 등 태풍의 진로를 끝까지 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의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

권익현 군수, 크루즈 인프라 구축 실행단계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크루즈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안의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1일 부안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10월 월례조회에서 "사드사태 이후 지난 3년간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며 "동북아 크루즈 환경변화에 따른 큰 움직임은 지역연대를 통해 국제정세와 같은 외생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자는 것, 새로운 기항지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놀라운 사실은 우리 부안이 크루즈 기항지로써의 최적의 입지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동북아 크루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발 크루즈선의 경우 단조로운 크루즈 항로의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간지점에 새로운 기항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안 번산반도는 크루즈 기항지의 정체성이나 관광상품 운영 측면에서도 자체 관광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1시간 거리 내에 전주 등 연계관광이 가능해 어느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대만 등 주요 업체들이 우리 부안의 입지에 주목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군수는 "이에 따라 크루즈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부안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동북아 크루즈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 지난 7월 대만국제크루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스페인 등 해외사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규모 국제행사는 크루즈 관광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폭제로 2023년 세계잡버리를 앞두고 있는 부안 역시 또 하나의 기회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이 동북아의 크루즈 거점 기항지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이르지 못할 것도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크루즈 인프라 구축과 크루즈선 시범 항차, 기항 유치 등 보다 구체적인 실행을 이뤄야 할 단계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이 있고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는 만큼 전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농업농촌 3분영화제 전국공모전 성료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의 농업·농촌을 배경으로 한 단편영화가 공개됐다. 특히 산, 들, 바다, 강, 갯벌이 모두 있는 고창군의 매력에 180초의 짧은 영상에 담기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고창 농업농촌 3분영화제 전국공모전' 수상작 시상식이 진행됐다.

농업농촌 3분 영화제는 농생명수도 고창의 농생명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제1회 대상의 영예는 고창의 수려한 풍경을 담아낸 '고창은 처음이다(팀명 모다불, 대표 민가람)'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으로는 '고창한끼(팀명 신고벗고, 대표 김도균)'이 선정됐고, 우수상 작품은 '고인돌의 숨결(팀명 해피특별, 대표 김효균)'과 '생명이 시작되는 곳 아름다운 고창이야기(팀명 강트루, 대표 김승룡)' 작품이 수상했다.

장려상으로는 황동욱씨가 출품한 '함담화', '스카이드림' 팀이 출품한 '전지적 고창시점 하늘에서 본 고창' 작품이 선정됐다. 이 밖에 입

선작 총 4작품을 포함, 총 10의 영상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고창군 농업농촌 3분영화제 전국공모전'은 지난 5월1일부터 8월 25일까지 작품을 모집해 총 45점의 영상작품이 접수됐다. 이후 전국민 온라인투표(4522명 참여)와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엄정하게 평가됐다.

고창군 농생명지원과 고운기 과장은 "이번 농업농촌 3분영화제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을 시상식 이후부터 각종 행사 및 교육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며 "고창군의 농업농촌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입주 희망기업 심의평가회 가져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창업보육실 입주자를 희망하는 4개 기업에 대한 심의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평가회는 입주기업 심의위원 7명이 참석해 기업별 입주 동기와 사업계획 설명, 산업화 방안, 질의답변 등을 거쳐 4개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현재 센터 내 창업보육실에는 총 8개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시는 입주기업에 촉사 약취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의 우수 인재 채용 등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협조 요청했다.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는 입주기업 보육 시설(16개 실)을 갖추고 있다. 미생물 대량배양기인 10톤 발효기와 농축 분리라인, 건조라인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미생물 생산·제조 중소기업에 입주공간과 다

양한 미생물 제품의 생산 기회를 제공한다. 또 농축산용 미생물 대량 배양조건 확립과 생산지원을 통해 영세한 규모의 산업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생물 제품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농축산 미생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으로 떠나는 따뜻한 가족 힐링 여행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오늘 개막

고창군이 '2019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오늘부터 6일까지 고창군 석정온천관광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온천축제는 '고창 석정온천으로 떠나는 따뜻한 가족 힐링 여행'을 주제로 개막행사, 공연행사, 체험행사, 학술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 석정온천 힐튼아트홀에서 열리는 '온천발전 심포지엄'에선 석정온천의 수리적 특성과 수질해설 등 5개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오후 6시 30분부터 석정온천 앞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이 진행된다. 뮤지컬 갈라쇼, 퍼포먼스(온천수 합수식), 불꽃놀이&서치쇼, 축하공연(러블리즈, 벤, 신유, 지원이, 박강성, 이정하, 지혜) 등으로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나흘간 석정온천지구에는 달빛버스킹, 온천수 각테일쇼, 힐링버스킹, 고창 실버동호회 공연 등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공연행사가 준비돼 있다.

특히 온천3종경기, 리마인드 프리포즈, 은해나무아래에서 즐기는 셀프족욕, 키즈존, 석정힐CC 힐링마실길 걷기 등은 행사전부터 참가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 나철주 문화유산관광과장은 "이번 온천축제 개최를 통해 온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석정온천은 프랑스 루르드 샘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온천이다. 기적의 샘물로 불리며 환자를 치료한 프랑스 루르드 샘물보다 게르마늄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치매안심센터가 지난달 3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총 8회기에 걸쳐 진행된 '치매 가족 헤아림 교실' 4기 운영을 마쳤다.

소통과 치유의 희망 나눔

정읍시보건소, 치매 가족 지원사업 '헤아림 교실' 4기 성료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3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총 8회기에 걸쳐 진행된 '치매 가족 헤아림 교실' 4기 운영을 마쳤다.

헤아림 교실은 노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이해도와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부담 경감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했다.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돌봄 정보 제공을 통해 치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시간에서 잠시 벗어나 지친 심신을 풀이보고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배움으로써 치매 가족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도 진행됐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겠다"며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가족 지지프로그램 '헤아림 교실' 5기는 2020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539-673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The advertisemen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